

부처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봤을까?

허남결 교수, 피터하비 '불교윤리학 입문' 역서 펴내



피터 하비 교수의 '불교윤리학 입문' (씨아이알 펴냄)



허남결 교수

내려온 법칙이다.' <답마빠>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최근 피터 하비 교수(영국 선더랜드대학교 불교학)의 저서 <불교윤리학 입문(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 2000)>(씨아이알 펴냄)을 번역 출간했다.

책에서 피터 하비 교수는 초기경전인 팔리어경을 토대로 불교윤리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 경제, 전쟁과 평화, 안락사, 임신 중절, 성 평등, 동성애 등과 같은 현대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에 적용했다.

피터 하비에 따르면 부처님은 전쟁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살아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그 원인은 소유에 대한 의식이다'며 물질적 궁핍을 갈등의 핵심적 원인으로 여겼다. 또한 부처님은 확고부동한 견해와 올바른 견해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견해에 대한 집착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다.

피터 하비는 "이러한 견해들에 대한 집착이 종교적·이념적 전쟁과 십자군 원정, 유혈 혁명, 가스 처형실 등을 초래했다"며 "실제로 20세기에 벌어진 수백만 명의 죽음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사람들이

로 인해 야기됐다. 히틀러, 스탈린, 크메르루주와 각종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이라고 지적했다.

피터 하비는 또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성 전환과 동성애 등에 대해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분석했다.

초기 불교경전에 따르면 사람의 성(性)은 삶을 윤회하는 동안 바뀔 수 있으며,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율장에는 여성의 성징(性徵)을 가진 비구와 남성의 성징을 가진 비구니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은 두 경우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 비구였던 비구니는 비구니의 계율을 따라야 하고, 비구니였던 비구는 비구의 계율을 따라야 한다고 간단히 말하고 있다.

피터 하비는 "성적으로 기능장애를 가진 수동적 동성애자의 출가

는 금지됐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갖는 현생에서의 정신적 잠재력은 제한된 것으로 간주됐다.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에서 일반인들 사이의 동성애 행위는 간혹 부도덕한 것으로 비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덤덤한 관용의 태도가 존재했었다. 3장에서는 대승불교의 윤리사상을 4장에서는 인간 이외의 다양한 생명들에 대한 윤리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책의 5~10장에서는 불교윤리학의 현대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피터 하비는 5장에서 △세속인의 경제 윤리 △올바른 생계

△수입의 적절한 사용 △통치자들을 위한 경제윤리 등을 다루었고, 6장에서는 불교일반의 평화적 이미지와 어긋나는 전쟁관과 그 역사적 사례 등을 소개했다.

7·8장에서는 자살과 안락사 및 낙태와 피임 등 인간의 생명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며 9·10장에서는 생명등과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터 하비는 영국불교학회의 공동 창립자이면서 영국에서 최초로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로 명성이 높다. 또한 그는 성공적인 인터넷 잡지인 <불교윤리학회잡지(Journal of Buddhist Ethics)>와 <현대불교연구(Contemporary Studies in Buddhism)>의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 불교학자다.

허남결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대승불교권에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야기되는 이슈에 대한 불교의 대응은 늦다. 장기이식, 뇌사, 미혼모, 안락사 문제에 대해 가톨릭, 개신교에서는 교단적 노력을 하는 반면 불교는 소극적이다"고 지적하며 "<불교윤리학입문>이 불교윤리의 주제 담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경주는 습지 매립한 계획도시

경주문화재연구원, 사천왕사지 등 발굴 결과 발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11월 25일 사천왕사지, 분황사, 왕경 유적에서 올해 발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신라 문무왕 19년(679) 창건된 사천왕사(사적 제8호)에서는 금당지 기반부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져 금당이 후대에 확장됐음이 밝혀졌다. 그간의 조사에서는 금당지, 동·서탑지, 추정 동·서단석지, 의랑지, 회랑지, 강당지 일부가 조사되는 등 전체적인 가람배치가 확인된 바 있다.

2010년 한해 조사 결과, 선대 금당은 정연하게 돌을 깔고 흙을 다져서 기반부를 조성한 반면 후대에 확장된 금당의 기반부는 선대 금당의 기반 끝부분을 비스듬하게 자르고 그 뒷부분에 흙과 돌을 일부 섞어서 기반부를 구축했다.

소재구 소장은 "후대 금당(동서 21m, 남북 15m)은 선대 금당(동서 19m, 남북 12m)에 비해 동·서 양 방향으로 200cm, 남북방향으로 300cm 확장됐고, 동·서축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남·북축의 중심이 북쪽으로 약간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천왕사에서는 가람빈가문수막새와 '술' 자 명 이형와 등이 출토됐다. 가람빈가는 극락조라고도 불리며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다.

안압지 동편의 왕경유적에서는 관련된 건물지와 정원시설, 담장지(공장) 등이 확인됐다. 이로써 동궁의 영역은 현재 정비된 안압지보다 동쪽과 북쪽으로 훨씬 넓은 범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대의 건물지 내부 조사에서는 1m 이상의 뿔층이 확인됐다. 소재구 소장은 "뿔층의 발견으로



사천왕사지 출토 가람빈가문 수막새

이 일대가 7세기 전반까지는 연약지반의 습지가 남아 있었고, 뿔층을 매립한 이후 도시가 형성된 것이 확인됐다"며 "조사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서방향의 도로 유구가 확인돼 황룡사 일대의 신라 왕경 계획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된 분황사 조사에서는 중문지 동쪽에서 확인된 동남회랑지가 서남회랑지와 비슷한 규모의 18칸으로 조사된 결과가 발표됐다.

소재구 소장은 "앞으로 남쪽회랑지와 연결된 동·서회랑지를 발굴해 8세기 중엽에 중건된 분황사 최전성기의 가람배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사찰음식 브랜드화 필요하다

김두라 교수, 사찰음식 심포지엄서 제안

"밥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일품요리로 상품화할 수 있는 메뉴와 사찰음식 전문점의 모델링을 개발하라. 사찰음식 전문인 육성위한 아카데미 개발 시급하다."

사찰음식 대중화·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과 정책제안이 오가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조계종 사찰음식연구단과 총무원 문화부(부장 호환)가 11월 20일 공동 개최한 '2010 사찰음식 추계학술심포지엄'에서 김두라 교수(한북대 외식영양전공)는 '사찰음식 대중화, 산업화를 위한 제안'의 주제발표에서

사찰음식에 대한 환경분석(SWOT)을 통해 사찰음식의 강점·약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찰음식의 강점인인 △세계적인 식품소비 트렌드와 부합 △불교문화의 특징을 갖춘 한국의 대표적 관광문화 상품으로서의 경쟁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채소류 중심의 식재료 사용(자연친화적) 등을 들었으며, 약점인으로는 △사찰음식의 상징적 이미지 부재 △사찰음식 전문가 부족 △외식시장에서의 낮은 경쟁력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민족전통음식(Ethnic Food)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새로운 컨셉의 외식업체 수요 증가 및 새로운 소비계층 형성, 독창적인 불교문화의 가치관과 이념이 담긴 사찰음식에 대한 구전효과와 가능성이 증가되면서 시장 확대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여전히 사찰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부족과 전문인력, 홍보채널 부족 등은 대중화 산업화를 위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라 교수는 사찰음식의 산업화 방안으로 △식단형태 및 메뉴구성의 변화 △사찰음식 전문점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찰음식에 대한 학



김두라 교수

문적 접근 △유통경로 다양화 △사찰음식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음식은 특성상 밥이 중심이 되고 밥을 위한 국이나 찬이 부식으로 제공되는 상차림이다. 사찰음식 역시 이러한 식단의 형태"라며 "밥이 중심이 되는 상차림보다는 밥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일품요리로 상품화할 수 있는 메뉴개발이 이루어져야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빔밥과 같은 간단한 일품요리와 최근 간편식이자 건강식으로 각광 받는 '죽'을 사례로 들었다.

김 교수는 또 "중국과 일본의 유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공 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은 '경주에 나타난 사찰음식 및 식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의 주제발표에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사찰음식이 실제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수행자들의 건강과 수성과 사찰음식 전문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한식조리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조리기능장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사찰음식에 대해서도 자격을 정하고 일정한 검증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식재료 판매 연계 등을 통해 유통채널을 넓히고 CI이나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개발을 통해

정토학연구 13집 발간

한국정토학회(회장 도입)는 최근 <정토학연구> 제13집을 펴냈다.

이번 호에는 △<극락장엄경>의 오중장엄과 예토의 정토화(희봉스) △염불수행과 열반의 구체화에 대한 일고(법상 스님) △무기(無記)의 사구(四句) 구조 분석(신병삼) △광덕사상, 그 연원의 시론적 소묘(김광식) △도산율사와 율종계보에 대한 논의(원형 스님) 등 논문이 실려 있다.

■ 811호 '日 정부 주도해...' 기사 사진은 BTN 제작 다큐멘터리 '혁명을 꿈꾸다. 아메리칸 부디즘'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신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단청분야의 대혁신!!!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랍,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유일스님 문종의 수석막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 명화, 개금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